

## 로컬플러스

## 부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김원술)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부안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관내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대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2017년 2월 1일)이 도래하면서 시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설치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총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를 위해 부안소방서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주요 소방대상물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게시하고 지역언론·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원술 부안소방서장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피해 줄이기 효과가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역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부안군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정읍고부파출소, 오토바이 순찰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고부파출소 영원지안센터장 정중영 경위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원면 주민들은 순찰차가 다니기 힘든 논·밭길과 골목골목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수시로 찾아와 빙정탈이, 4대 사회악 흥보는 물론 이런 저런 말을 걸어주는 정중영 경위가 마냥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며 평소 경찰에 대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경찰관과 미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기까지 하다는 반응이다.

정중영 경위는 “오토바이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많은 주민들을 만나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안분야에 대한 기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김제시는 29일 김제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이해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들 60여명을 대상으로 윤리 및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기남 소장(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주택법령 제도와 입주자대표의 입주민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시설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김제소방서 예방 안전팀에서는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방법, 화재사례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산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 부안군산림조합, 감나무 배부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이 매년 조합원들에게 감나무를 나누어 주었으나 금년에도 조합원들에게 나무교환권 1인권을 배당금통지서와 함께 발송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산림조합은 22일에는 금융활성화를 위해 일반금융거래자를 포함해서 부안군민들 선착순 1천명에게 감나무와 매실나무 1그루씩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오세준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안군민과 산림조합의 밀착형 경영을 도모할뿐만 아니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고 늘 푸른 도시를 만드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보고 2017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펼칠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정읍시 ‘올바른 주차’ 캠페인

##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나서

정읍시가 올바른 주·정차 지키기 시민의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는 “새 봄을 맞아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주·정차 의식 개선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시에서는 「주정차질서 지키기」에 시민 모두 참여 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차량은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하기 ▲▲가까운 거리는 자가용을 타지 말고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통량이 많은 시내 중심 도로변에는 ‘잠깐주차’도 금지 ▲▲교차로·횡단보도·인도에 주차 금지를 실천수칙으로 정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편으로 시는 시민들의 주차권의 위해 시내 주요지역에 30분 간 무료로 주차 할 수 있는 3개소의 공영 주차장과 무료 임시공영 주차장

25개소 노상 주차장 21개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62개소 40.4km에를 대상으로 10명의 교통지도요원과 CCTV가 탑재된 2대의 차량 고정식 CCTV 15대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내 중심로와 충정로·초산로·샘고을시장·새암로 등의 불법 주·정차 주요 단속지역에서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인도와 횡단보도,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모퉁이 우회전 방해차량은 즉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 주요 도로변에 잠깐주차와 교차로, 인도는 물론 버스정류장에까

지 주차하는 비양심 운전자들로 인해 차량통행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권에 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악몽의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교통 혼잡 지역에 불법 주차 할 수 없도록 단속 봉을 설치했다.

시민 K씨는 “시내 혼잡지역에 단속 봉을 설치한 후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며 “일부 상가에서 단속봉 설치 후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불법 주·정차 균절과 시민들의 교통증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과 규제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종규 부안군수는 격암 남사고의 예언을 언급하며 부안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며 비전을 제시했다.

## “꿈은 간절함으로 실현”

## 김종규 부안군수, 남부안농협 지역문화대학 특강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꿈은 간절함으로 이뤄진다”며 꿈을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 천년을 개척해 나가자고 지난 22일 열린 남부안농협 지역문화대학 개강식 특강에서 밝혔다.

특히 김 군수는 “부안은 한반도를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민주 땅을 헤친 형상으로 표현한 격암 남사고의 ‘신수’ 비경에서 호랑이의 낭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리가 태(태어난 곳)를 물은 곳은 한국의 낭심이지 만 빼(죽은 뒤, 물한 곳)를 물은 곳은 부안이 중심”이라고 부안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또 “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잘 맞듯 땅과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 땅은 하나”라며 “내 집, 내 마을, 내 도시 등 땅과 사는 곳 역시 하나로 연결돼 있어 내가 사는 고장이 잘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연계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1년 적금은 2016년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미래 부안 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고 3년 적금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안미술축제를 2017년까지 100만 명이 찾는 명품 축제로 융성해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10년 적금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부안 새만금 유치를 통해 글로벌 부안, 대한민국

## 정읍농기센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코젯호박 시험평가

## 농업인 등 50여명 참석



평가회에서는 육묘시 주의사항이나 수정방법 등의 설명과 시식행사를 가졌다

정읍농기센터는 지난 22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코젯(courgette)호박 재배 실증시험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에는 애호박·재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월에 코젯호박 실증 시험포를 조성, 재배하고 있다.

평가회에서는 육묘시 주의사항이나 수정방법, 전조처리, 호박유인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시식행사를 가졌다.

코젯호박은 유럽에서 재배하는 호박의 일종으로 샐러드·튀김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애호박 품종은 네줄이 길게 자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경우 끈을 이용해 호박을 유인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호박의 네줄이 커지면 호박의 순을 밑으로 내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존의 애호박 품종은 네줄이 길게 자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경우 끈을 이용해 호박을 유인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호박의 네줄이 커지면 호박의 순을 밑으로 내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존의 애호박 품종은 네줄이 길게 자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경우 끈을 이용해 호박을 유인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호박의 네줄이 커지면 호박의 순을 밑으로 내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김제시보건소는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238개

점감되는 장점 가지고 있다.

또한 수정벌을 이용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호박에 비해 과육도 단단하고 모양도 균일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는 이번 달의 슬로건처럼 ‘건강한 금연도시, 김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시보건소는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해 월 1회 집중 홍보의 날을 운영하고 홍보 책자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 시킨다.

/김제=곽노태기자

##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 김제교월동 ‘당신멋져봉사대’ 무료장수 사진촬영 봉사

김제시 교월동 ‘당신멋져 봉사대’(공동대표 최창의, 김주택)는 지난 22일 관내 명덕동 송촌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쳤다.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해나가고 있는 당신멋져 봉사대원들은 매월 교월동 소재 마을을 순회하며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즐거운 단社会实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을 진행한 당신멋져 봉사대의 최창의, 김주택 공동대표는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당신멋져 봉사대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감사의 말과 함께 격려를 했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보건소, 금연 등 건강증진 홍보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 혈압·혈당管理水平에 함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난 22일에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제시보건소는 2015년 지평선축제에서 건강한 금연도시를 선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

##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기장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넓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은 맛을 품은 부안강산봉주를 소개합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전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전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500ml 2ea, 전 2ea/12% | GIFT SET 4호 | 375ml 5ea/13%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 1ea/13%, 전 1ea, 오프너 |



부안  
강산  
봉주

Premium  
Obdi Wine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

## 부안군산림조합, 감나무 배부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이 매년 조합원들에게 감나무를 나누어 주었으나 금년에도 조합원들에게 나무교환권 1인권을 배당금통지서와 함께 빙정해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산림조합은 22일에는 금융활성화를 위해 일반금융거래자를 포함해서 부안군민들 선착순 1천명에게 감나무와 매실나무 1그루씩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오세준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안군민과 산림조합의 밀착형 경영을 도모할뿐만 아니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고 늘 푸른 도시를 만드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보고 2017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펼칠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